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島 돌하르방의 美的特性 研究

指導教授 金 昉 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梁 瑢 芳

1994年 8月

濟州島 돌하르방의 美的特性 研究

指導教授 金 昉 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提出者 梁 瑢 芳



梁瑢芳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文 昉 熙
하 명 순
金 昉 熙



〈抄 錄〉

濟州島 돌하르방의 美的特性 研究

梁 珞 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昉 熙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이정표로서, 또는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던 돌하르방은 최근에 들어 시대적 변화와 도로확장, 자동차 홍수 등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고 있어 원형보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민중들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지내온 돌하르방은 제주도 특유의 구멍이 승승 뚫린 거므스름한 현무암으로 제작되었고, 제주도 풍토와 기질을 대변이나 하듯 표정없는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서있어 묵직한 제주의 무게를 더하고 있다. 위엄이 있되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보는이를 웃음으로서 포용하는 여유를 담고 있으며 해학적인 느낌까지 들게하는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고 다만 몇몇 관련학자들이 南方文化 유입설이나 北方文化의 전래, 또는 본토 장승의 유입설, 제주도 자생설이니 하는 여러가지 견해들을 추측으로만 논하고 있고, 또한 돌하르방의 擬製에 대한 關聯銅製가 전혀 없고 명칭도 확실하지 않아 여러 이름으로 통용되다가 근래에 와서야 돌하르방이란 명칭으로 제주도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신앙의 대상물이었던 돌하르방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 함으로서 先人들의 생활 감정을 파악하고 그속에서 표현되어진 절제된 造形意識과 美意識을 규명해보고 돌하르방의 형상속에서 우리나라의 조형적인 측면에서 돌하르방의 餘裕와 諧謔美를 각지역별, 부분별로 면밀히 분석 考察한 결과 돌하르방은 지역별로 독특한 형태로서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單純과 強調가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한 도민들의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상과 美意識이 잘 표현되어 있어 純粹한 美를 느낄 수 있었다.

目 次

抄 錄

I. 序 論	1
II. 濟州人の 美意識과 돌(石) 文化	3
1. 濟州의 自然環境과 美意識	3
2. 濟州와 돌(石)의 文化	7
III. 濟州의 상징적 石人像-돌하르방	10
1. 돌하르방의 형성배경	10
1) 돌하르방의 起源	10
2) 돌하르방의 名稱	12
3) 돌하르방의 機能	14
2. 돌하르방의 造形美 분석	16
1) 돌하르방의 餘裕와 諧謔美	17
2) 돌하르방의 美的 特性 考察	43
IV. 結 論	48
參考文獻	51
Summary	53
附 錄	55

寫 眞 目 次

사진 1. 제주대학 정문앞 좌측	19
사진 2. 제주대학 정문앞 우측	19
사진 3. 제주KBS 현관 좌측	20
사진 4. 제주KBS 현관 우측	20
사진 5. 제주시청 현관 좌측	21
사진 6. 제주시청 현관 우측	21
사진 7. 국립민속박물관 좌측	22
사진 8. 국립민속박물관 우측	22
사진 9. 관덕정 앞마당 좌측	23
사진 10. 관덕정 앞마당 우측	23
사진 11.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좌측	24
사진 12.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우측	24
사진 13. 관덕정 뒷뜰 좌측	25
사진 14. 관덕정 뒷뜰 우측	25
사진 15. 제주국제공항 입구 좌측	26
사진 16. 제주국제공항 입구 우측	26
사진 17. 삼성사 입구 좌측	27
사진 18. 삼성사 입구 우측	27
사진 19. 삼성사 정문 앞 좌측	28
사진 20. 삼성사 정문 앞 우측	28
사진 21. 목석원	29
사진 22. 제주대학교박물관 입구 좌측	30
사진 23. 제주대학교박물관 입구 우측	30

사진 24. 대정읍 안성리	31
사진 25. 보성국교 입구 우측	31
사진 26. 보성국교 입구 좌측	32
사진 27. 보성국교 교정 좌측	32
사진 28. 보성리 노변	33
사진 29. 보성리 노변	33
사진 30. 보성리 사무소 입구 좌측	34
사진 31. 보성리 사무소 입구 우측	34
사진 32. 인성리 입구 좌측	35
사진 33. 인성리 입구 우측	35
사진 34. 추사기념관 입구 좌측	36
사진 35. 추사기념관 입구 우측	36
사진 36. 표선면 성읍리 동문밖 좌1	37
사진 37. 표선면 성읍리 동문밖 우1	37
사진 38. 표선면 성읍리 동문밖 좌2	38
사진 39. 표선면 성읍리 동문밖 우2	38
사진 40. 표선면 성읍리 서문밖 좌1	39
사진 41. 표선면 성읍리 서문밖 우1	39
사진 42. 표선면 성읍리 서문밖 좌2	40
사진 43. 표선면 성읍리 서문밖 우2	40
사진 44. 표선면 성읍리 남문밖 좌1	41
사진 45. 표선면 성읍리 남문밖 우1	41
사진 46. 표선면 성읍리 남문밖 좌2	42
사진 47. 표선면 성읍리 남문밖 우2	42

I. 序 論

어느 지역이건 간에 그 지역에 고유한 自然風土의 특수성이 있게 마련이다. 자연 환경은 이 속에서 生을 영위하는 생활주체로서의 인간의 기질 내지는 그 민족성에 영향을 주고 이를 규정하며, 나아가서는 그 민족에 고유한 美意識 내지 藝術意識을 비롯한 諸文化 현상을 규정한다.¹⁾

인간의 집단인 민족의 성격이 자연적인 풍토적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고 할 때, 환경적 인자는 민족성과 그 문화의 특성을 규정하는 인자가 되는 것이다.²⁾

濟州島라는 지역은 주변지역과 매우 특수한 自然環境을 갖고 있다. 바다 한가운데 태풍이 불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였고, 토질은 多孔質의 火山岩인 玄武岩과 火山灰土로 덮혀있어, 전국 최다 강우량(연평균 강우량 : 1440mm) 지역³⁾이지만 내리는 족족 지하로 스며들어 물이 매우 귀한 섬이었다.

옛부터 제주도에에는 三災라는데 있어 先人들을 괴롭게 했다. 조선시대 세종때 과세를 논함에 있어 제주도는 「山高多風災하고, 谷深多水災하며, 土薄多旱災하니 제주도민에게는 납세를 면함이 마땅하다」라는 기록⁴⁾ 등이 있다. 이러한 악조건하의 환경에서도 先人들은 스스로 삶의 슬기를 터득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로 제주도의 질곡한 역사를 이어왔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선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민간신앙이 널리 파급되었고, 곳곳에 풍화에 견딜 수 있는 돌무더기(防邪塔) 또는 石像(석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수호신등으로 모셔 神聖시 했었다.

그리고 소박한 기술로 땅과 바다라는 두개의 생활 터전을 개척하고 지척에 깔린 돌과 강한 바람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고, 先人들은 돌을 건축의

1) 백기수(1984),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 9

2) 백기수(1985), 「미학서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53

3) 고창훈외(1991), 「제주기행」, 백산서당, p. 17

4) 한창영(1982), 「제주도 산고」, 한일문화사, p. 261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여 독특한 住居文化를 형성하고 또한 마을어귀에 수호신을 조각하는데 사용하였다.

돌(石)의 文化는 제주도 基層文化 遺産중 가장 民衆의 심성과 신성을 담은 제주민중 文化의 한 상징이었고 보호, 보전 해야할 文化 遺産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돌하르방에서 보이는 제주 민중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정신세계를 담당했던 역할을 찾아보며, 돌하르방의 우수한 조형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文獻을 중심으로 돌(石) 文化의 중심이 되는 제주도의 自然環境과, 美意識 등을 알아보고, 이러한 美意識이 반영된 제주도의 상징적 석인상인 돌하르방의 생성배경과 起源 및 名稱, 機能 등을 알아보며, 돌하르방의 신비한 미소속에 있는 餘裕와 諧謔美, 미술해부학적인 측면과 조형미, 그리고 돌하르방과 유사한 육지부의 石장승과 비교하면서 돌하르방의 美的特性을 각 부분별로 분석 考察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법은 지금까지 연구 발표되어진 文獻내용을 수용하고 비교하면서 현존하고 있는 돌하르방 47基 즉, 서울 경복궁내 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2基와 각지역(제주시내 21基, 대정 12基, 성읍12基)에 분포 되어있는 돌하르방을 직접 현지답사하여 정확한 실측과 보존상태등을 파악하였다.



II. 濟州人의 美意識과 돌(石) 문화

1. 濟州의 自然環境과 美意識

김정(金淨)⁵⁾은 濟州島의 風土에 대하여 “기후는 일기변화가 많아 병이 나기 쉽고, 운무가 항상 음침하게 가리우고, 질풍과 괴이한 비가 솟구쳐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다”⁶⁾라고 濟州風土錄에 기술하고 있고, 이건(李健)⁷⁾의 濟州風土記에는 자기가 몸소 체험한 당시의 濟州에 대하여 “...탐라의 한 섬은 대해 중에 막재하여 장려가 뭉친 곳ियो, 해독이 찌는 곳으로 겨울, 여름 할 것 없이 바람 아니면, 반드시 비가오고, 비가 아니면 산 안개로 맑게 개인 날은 극히 적다. 태풍이 헌천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상하여 그 괴로움이 견딜 수 없으나 섬 사람들은 별로 소상함이 없다.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사갈이요, 가장 슬픈 것은 파도 소리다. 질병이 있을 때는 단지 스스로 손을 매어 죽기를 기다릴 뿐이요, 침약으로 견딜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죄 있는 사람을 이땅에 추방하는 것은 깊이 적의함을 얻는 것이라 하겠다. ...”⁸⁾라고 처참하게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 살곳이 못 되기에 옛부터 제주에 부임하는 관원이 울고 왔다가 임기마쳐 떠나 갈적에는 그 혼혼한 인정미에 떠나 갈수 없어 다시 울게 되는 곳이라 한다. 제주 문화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라 하겠다.

문화 양식은 문화 전통의 표징이요, 그 민족이 살아온 역사의 얼굴이다. 사람이

5) 金淨(1486~1521), 자는 元沖, 호는 沖庵, 정랑효정의 아들로써 중종15년에 제주에 移配되었다.

6) 金淨,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p. 8
(...氣候...變錯無恒...加以雲霧恒陰...妄風在雨 發作無時...)

7) 李健, 선조의 제7남 仁城君의 세째 아들

8) 李健, “濟州風土記”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자료 29호, p. 201
(耽羅一島 遊在大海中 瘴癘所鍾 海毒所蒸 無論冬夏 不風側必雨 不雨側必嵐 晴明之日極小 至於颶風 掀天之時 人多感傷 不堪其苦 最苦者 粟飯也 最畏者 蛇蝎也 最悲者 波聲也 疾病之來 只自束待死 無以施鍼藥之方 此實 通國久罪地 人所不堪之處 國家 所以放逐 有罪人於此地 深得其宜也)

어떻게 사느냐를 生の 철학이라고들 하는데 거기에는 행동양식이 수반되며 이면에는 의식구조가 있다. 의식구조를 心境世界니, 마음먹기니 하는데 객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思想과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느낌과 뜻, 이 세가지가 마음의 세계이다.

불교철학에서는 인간을 정신과 육신으로 구분하여 정신을 眞我, 곧 참의 인간으로 보고 육신은 물질, 곧 段我로 본다. 不生不滅하고 不憎不感하며 영원장생하여 六徐轉生하는 것은 眞我인 정신, 마음이라고 하였다. 一切唯心造철학은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요컨대 일체의 인간행동을 마음(心)의 작용에 불외한 것이니, 제주문화의 특징도 제주인의 마음이 작용된 결과이므로 제주문화를 아는 첩경은 제주인의 마음의 세계를 아는데 있다 하겠다.

그러나 마음은 무형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내는 간접방법이 행동양식이다. 그것은 마음의 반영이 곧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은 無에서 발동되지 않는다. 반드시 외부자극에 의해서 작용하니 그것이 첫째 自然風土와 地理的 환경이요, 둘째 外來文化의 영향이요, 셋째 역사적인 여건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헤르더(J. G. Herder)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지의 岩石과 植物을 포함한 풍토의 차이가 주민의 고유한 품성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문화가 그 지역의 풍토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 하였다. 풍토는 한 민족이 살아온 어떤 지역의 지리적인 자연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어떤 심리 상태까지 포함하는 즉, 심리적인 주관과 환경은 무언가를 암시해 주는 대상으로 가득차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만의 경험 속에서 독특한 미의식을 형성⁹⁾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濟州人의 전통적인 美意識이란 무엇일까? 순서없이 나열한다면 주냥정신, 근면성, 협동성, 단결력, 상부상조, 강인성, 자조자립 정신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고, 제주인의 美意識의 구현된 행동양식의 하나로 주냥 즉 근검, 절약정신을 들 수 있다. 이는 검소한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검소한 삶은 물질적 사치성을 배격한

9) 김영기(1991), “풍토에 담겨진 조형의식”,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p. 183

다. 외형상의 장식을 거부하고 내면적 정신적인 삶에 濟州人들은 무한한 美意識을 느꼈고 실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南梭錄¹⁰⁾에 “내가 지방인을 보니 밖으로는 어리석은 듯하나 안으로는 공교로운 지혜가 많아서 일찍 자기의 곤고한 일과 수재의 나쁜짓을 일일이 밝히고 매우 조리가 있었으며 또 의리를 섞어 말하여 남에게 경칭하게 하는데 단연히 전혀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濟州人은 자기 자신보다 남이나 주의를 의식하여 외형을 꾸미지 아니하며 얼핏 愚人으로 보이나 정신에는 현명한 철리가 간직되어 있어서 마치 소크라테스와 같은 인간상이 바로 濟州人인 것이다. 이러한 철학이 제주인의 독특한 문화의식이요 전통문화인것이다.¹¹⁾

本島의 住家空間構造를 보면 住家 입구에서 住家内部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래]라고 한다. 반도부에서는 [올래]가 없이 대문(大門)이 있는데 제주도에선 이와 반대로 大門이 없는 대신 [올래]가 있고, 大門 기능을 갖는 정낭의 독특한 形態와 構造가 있다.

張保雄 교수가 쓴 「濟州島 民家の 연구」라는 논문에서 정낭의 기능은 마을 부근에 放牧해 놓은 牛馬의 침입방지를 위해서이고, 다음에는 住家内에 사람이 부재중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는 표징이라고 밝혔다. 한편, 濟州島 住家の [올래]에 대한 膾炙되는 說로는 주민이 사생활을 내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에 의한 것, 혹은 도민이 갖는 美學的감각의 결과¹²⁾라는 說등이 있으나 이러한 것은 모두 濟州島의 환경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濟州島는 風多의 섬이다. 이 風多가 본도 가옥의 構造, 形態, 機能에 큰 영향을 주어 왔으며 이외 언어등의 생활 양식에까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제주도의 연평균 풍속은 4.8m/sec이고, 겨울철에는 10m/sec이상의 강풍이 자주 불고 심할때는

10) 金尚憲 編著,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p. 52

(…餘見土人 外似愚囊 而內多功慧 嘗言其自己困苦之事 守宰無狀之實 一一貫穿 甚有條理且雜以義理 動人傾聽 斷非全然鹵莽之類…)

11) 김인호(1991), “제주도의 傳統文化에 대한 再評價” 「제주문화의 재조명」, 도서출판 一念, pp. 164~170

12) 송성대(1991), “삼무정신 형성에 대한 지리학적조명” 「제주문화의 재조명」, 도서출판 일념, p. 61

20m/sec까지 불게¹³⁾ 될때도 있다. 이러한 風多의 기후에서 독립시설로서의 大門은 風壓에 견딜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雨風時에는 오히려 불편을 조장하기 조차 한다. 그러나 住家 주변에 防風垣을 쌓아 방풍을 도모 하였지만 대문이 없으면 無門이 되기 때문에 대문의 기능에 대신할 시설이 요구된다. 바로 여기에서 [올래]를 考案하게 되었고, 한결같이 모든 [올래]는 직선형이 아니고 곡선을 이루고 있어 住家入口에서 住家마당까지 들어 가려면 일단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곡선형과 방향전환의 의미는 바로 外風의 摩擦係數를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되어 風速을 완화 시키게 된다.

정낭을 사용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반도부에는 과거에 뱀, 멧돼지, 곰등에 의한 災害가 있어 이에 대한 방비로 板狀木내지는 싸리를 재료로한 大門이 필요하였지만 本島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다.

정낭이야 말로 제주도의 風土에서 耐風性, 耐久性, 便益性에서 가장 합리적인 구조와 형태 그리고 기능을 갖는 大門아닌 大門인 것이다.¹⁴⁾

또한 本島의 전통가옥인 草家에도 제주도민의 삶의 지혜가 다분히 內在하고 있다. 제주도의 초가지붕은 바람과 싸우면서 살아온 제주민의 생활의 한 표현이다. 건축양식, 특히 주택건축양식이란 민족이 생존해 온 역사적인 조건과 자연과 적응하는 기후 조건에 따라 오랜 시일 속에서 하나의 양식으로 정형화한 것이다. 제주도의 초가지붕 역시 自然環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기생화산의 柔軟한 曲線과 草家 지붕의 곡선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濟州島는 경사가 완만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360여개의 오름(기생화산)들이 부드러운 능선으로 둥글고 큰 무덤들을 이루고, 조그만 초가지집의 곡선도 그것을 따르며 크고 작은 부드러운 곡선의 반복으로 울동적인 힘을 가지면서 평화로움과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친밀감, 만족감은 결국 濟州人의 思想이나 感情에 영향을 미치어 島民들은 자연 환경을 정복하려는 저항적인 태도가 아닌 대자연의 혜택에 順應하는 자세로 순수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면서 순박한 美를 창출하고

13) 고창훈외, 전게서, p. 7

14) 송성대, 전게서, pp. 62~63

제주 고유의 民俗文化를 形成하게 되었다.¹⁵⁾

향토적 가옥에 있어서 빠뜨릴수 없는 요소는 초가지붕의 유연한 선과 돌로 쌓아올린 외벽의 重厚함이다. 물론 이러한 要素가 강한 바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과 지척에 깔린 돌의 활용이란 實用的인 의미이다.

이처럼 제주도 先人들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는 경건함을 느낄수 있을 정도로 돌과 깊은 관계로 맺어 왔다. 風多를 극복하기 위하여 石多를 이용한 삶의 지혜, 이것이 濟州文化의 精髓인 돌의 文化이다.¹⁶⁾

2. 濟州와 돌(石)의 문화

이러한 濟州의 不毛의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싸움에서 삶의 지혜를 창출해 내었으니,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돌을 다루고 돌과 싸우면서 돌에 의지 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어 이룩해낸 돌의 文化”라고 할 만하다. 이 표현 속에는 제주도의 역사성과 문화의 양식이 함축되어있다. 자연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더구나 돌과 상대하여 돌을 다루어온 역사라는 점에서 그 역사의 치열성이 그 결과로 형성된 문화라는 점에서 그 강인함과 질박함을 생각할 수 있다.

토인비는 그의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 문명의 발생의 적극적인 요인에 대하여, 인종과 환경에 대한 도전과 응전의 양식으로 설명하였듯이 제주도 사람들은 不毛의 환경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돌의 文化을 이루어 낸 것이다.¹⁷⁾

濟州島의 돌(石) 문화의 역사는 원시 공동체 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가 살필 만큼 장구한 역사를 갖는다. 先史時代의 돌(石) 문화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支石基가 도처에 산재해 있고, 또한 형태와 구조에서 한반도 육지부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석묘를 築造하는 큰 일에 있어서 인접한 몇 개의 마을 또는 氏族이 일종의 ‘두레’같은 협동 조직체를 구성 시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원시공동체

15) 조운득(1987), “濟州 石像에 관한 研究-墓所의 童子石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16) 서경림(1985), “제주 돌의 활용방안”, 「제주도」 통권 제79호, p.168

17) 현길언(1990), “제주와 돌의 문화”, 「제주도」 통권 제88호, p.177

적 성격이 濟州島 원시사회에 적용되는 것은 지식묘 구축에 따른 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文化의 基層에 융합과 협동에 따른 조화의 정신이 깔려 있기 때문인 것이다.¹⁸⁾

이원진(李元鎭) 목사編 <耽羅志> 풍속조에는 “돌을 모아 담을 쌓다. 東文監에 제주에는 亂石이 많으며, 본디 부터 논밭은 없고 다만 밭에서는 보리, 쌀, 조가 생산된다. 그리고 옛날에는 밭 사이에 경계가 없어 강퍽한 자들이 날로 잠식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다. 金坵가 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돌을 모아 담을 쌓고 밭의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큰 편의를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쌓아 올려진 밭담은 비단 경계의 구실만 했던 것은 아니다. 수시로 불어오는 '또 하나 많은 장애'인 바람을 막아내는 구실까지도 했다. 또한 돌을 쌓는 데도 묘기를 보여주고 있다. 돌위에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또 올려놓고 한 특이한 쌓기는 중간 중간에 송송 구멍이 뚫리고 한번 보매 위태위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람을 걸러 내어서 담이 무너짐을 버티어 주고 있다.¹⁹⁾

제주사람들은 이 돌담을 쌓으면서 삶의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였다. 담을 쌓는 데는 각양각색의 돌들이 각각 제 기능을 다하면서 필요하게 된다. 큰돌만 단단하고 보기 좋은 돌만 필요한게 아니라 작은돌도 밋밋한돌도 못난돌도 둥근 넓적한 돌도, ... 모든 종류의 돌들이 필요로 한다. 그것들이 돌담을 쌓아 가는데 적합한 자리에 놓여지게 될때, 그 담은 견고한 담이 된다. 그리고 한쪽을 흔들면 그 담 전부가가 같이 흔들어지는 담이라야 잘 쌓은 담이라 한다. 그건 일종의 공동의식을 뜻한다. 작은 혹 쓸모없는 듯한 돌맹이들이 모여 하나의 밭담을 이뤄냈을 때, 각 돌맹이들의 개별자적 모습은 없어지고, 오직 담을 구성하는 자기 기능이 담과 함께 있을 뿐이다.²⁰⁾

여기에서 묘한 조화의 논리속에 개인과 전체의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게 된다. 바로 이게 제주도민의 삶의 지혜였고, 인간관계에서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길이었

18) ——(1990), “제주와 돌의 문화”, 「제주도」 통권 제88호, p. 179

19) 오성찬(1989), “제주와 돌의문화”, 「제주도」 통권 제85호, p. 35

20) 현길언, 전제서, p. 183

다. 또한 거칠고 투박한 不毛의 땅에서 생존을 확보하는 일은 주어진 힘에 의지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함을 인식하여 濟州先人들은 신앙을 통하여 그 한계성을 극복하려 했을 것이다.

조선조 제19대 숙종(肅宗)28년(서기 1702). 이형상(李衡祥)목사가 “당(堂)오백. 절(寺刹) 오백을 부수었다”라는 巫佛破綻의 유명한 기록²¹⁾으로 보아 당시 도민들의 정신적 지주인 민간신앙이 성했음²²⁾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민간신앙의 대상물이었던 성황당, 방사탑(일명 거오기), 석상, 돌하르방, 영등하르방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그 일면을 살필 수 있다.

濟州의 돌(石)文化에는 不毛의 자연과의 싸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획득하여 온 제주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그대로 表象되어 있다. 그것은 삶의 치열성과 진지함과 그리고 그 성취된 생활 양식의 질박성에 있다. 그것은 돌 같이 순박하면서도 견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濟州 돌(石)文化의 역사는 제주사람들의 생존의 역사이며 바로 이 섬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 삶이 응고되어 있는 살아있는 문화 즉, 제주역사의 주체자로서의 민중들의 문화라는 점에서 더 큰 문화적 의미있는 것이다.²³⁾



21) 조선조 肅宗 28년(1702)목사 李衡祥이 광양당을 헐고 三邑(牧官·大靜·旌義)의 神堂과 절(佛寺) 130여 곳을 불사르고 심방 4백여명을 때려 내쫓아 각각 蹄農하게 되었다는 기록을 말함.

22) 진성기(1981), 「제주민속의 멋 2」, p. 54

23) 현길언, 전계서, p. 195

Ⅲ. 濟州의 상징적 石人像-돌하르방

1. 돌하르방의 형성배경

濟州島의 척박한 땅에서, 강한 바람 앞에서, 風餐露宿을 하고 있는 돌하르방들은 비록 구멍이 송송 뚫린 거무스름한 玄武岩으로 조각되어진 石像이기는 하지만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濟州人들의 역정만큼이나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온갖 세속적인 喜怒哀樂의 감정들을 사람들 자신보다 더 압축적인 造形으로 드러내고 있다.

돌하르방의 生成은 확실한 자료가 없고, 다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文獻에 의해 제시하고 몇몇 학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起源, 名稱, 機能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돌하르방의 起源

‘偶石木’, ‘武石木’, ‘벽수머리’, ‘돌하르방’등으로 호칭되는 濟州의 州縣城 石像은 국내외에서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珍重한 민속자료이다.

이 석상들은 지난날의 州縣城 소재지인 지금의 제주시가와 대정읍 保城, 仁城, 安城 및 표선면 성읍 세 군데에 포함 47基가 남겨져 있다.

제주, 대정, 정의 삼주현칭 소재지 둘레에는 각각 州縣城이 높직하게 쌓여있고, 성마다 그 동서남북에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석상들은 바로 성문 밖에 세워졌던 것들이고,²⁴⁾ 濟州島 石像들의 유래는 반드시 성곽과 관계 되고 있다²⁵⁾고 추측하여 본다면, 제주 주성이 이루어진 것이 서기 1512년(중종7년), 정의현성의 축성은 서기 1423년(세종5년), 대정, 정의성이 서기 1418년(태종18년)이다.²⁶⁾ 이렇게 성의축조 연대와 관련지워 보면 濟州 石像의 유래는 대략 15세기 전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24) 김영돈(1989),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민족과 문화」, 한국문화인류학회, 정음사, p. 103

25) 진성기, 전계서, p. 30

26) 김영돈, 전계서, p. 117

다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기록, 淡水契編 <耽羅誌>에 “옹중석은 제주읍성 동서남 삼문에 재하였고, 단기 4087년 甲戌 영조30년에 목사 김몽규가 창건한 바인데 삼문이 혈림으로 관덕정 앞과, 삼성사 입구에 이치되었다” (p82) 라는 기록이 있는데, 즉 제주 석상은 서기 1754년에 김몽규 목사에 의해서 만들었고, 성문이 혈림에 따라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성기(秦聖麒)는 여러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는데, 첫째, 제주도는 고려 충렬왕 8년(서기1282)에 몽고에 의해 97년간의 통치를 받아 풍속, 언어등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둘째, 이와 비슷한 다른 유형의 人石像은 육지를 비롯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여러 섬에도 분포되어 있다는 점, 셋째로, 조선조 태종때 대정에는 벌써 돌하르방과 관계 깊은 성곽을 쌓고 縣을 설치 했다는 점등 여러가지 역사적 배경을 들면서 1754년에 김몽규 목사가 창건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²⁷⁾ 특히 그는 ‘무성목’, ‘위성목’이라 하는 이름에서 ‘목’이라는 말이 漢字 ‘木’에서 온 것이라면 이 석상이 원래 木像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도외시 할 수가 없고, 木製의 神像 혹은 木造像을 통칭 木偶라고 한다면 지금도 제주에서 本郷堂神(守護神)을 木偶 한 쌍으로 모셔 받드는 것과 상통점을 갖게 된다. 木偶를 모셔 받드는 마을이 제주엔 여러 곳 있는데, 그 중 중문면 하에리 木偶는 神名이 ‘玉皇都臣下’와 ‘漢拏自官都’의 한 쌍의 부부로, 국내 도처의 ‘天下大將軍’과 ‘地下女將軍’의 한 쌍의 장승처럼 天神과 地神과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

‘돌하르방’이 원래는 木偶에서 출발하여 그 강력한 영향과 자극으로 石偶로서 조성되어 마침내 독특한 石像으로 발전하였던 것이 아닌지 추측하여 보면서 ‘돌하르방’이 김몽규라는 목사 1인의 창의로 세워졌던 점은 절대로 아니고 古來하여 오는 습속을 石化하였다는 과정이 그때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옳다면 ‘돌하르방’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年代를 高麗나 그 이전으로 溯及하여 볼수 있겠고, 原初住民들의 信仰에서 유래된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성문에 採用되기 이전에는 훨씬 자연스러운 관점에서 適所에 배치 되었을 가능성도 짙다²⁸⁾고 설명하고 있다.

27) 진성기, 전계서, p. 33

28) 진성기(1973), “제주도 돌하르방”, 『민학2』, 민학회, pp. 106~107

김영돈(金榮敦)도 역시 18세기 중엽 방어사 김몽규가 창건 했다는 기록에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이 기록에 있는 機能, 形象, 名稱 등으로 보아서는 本土의 '장승'(목재 및 석재)이 유입 변형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이러한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州縣城 石像들은 그 形像이나 주체적 기능으로 보아 제주적 고유성을 다분히 간직하고 있다²⁹⁾고 要約하고 있다.

현용준(玄榕俊)은 1963년 「제주도」지에 발표한 돌하르방에 관한 論文인 “濟州石像 ‘우석목’ 小考”에서, 英組때의 김몽규 방어사가 장승의 形象과 민속적 機能을 體驗하고 와서 實用적 機能이 없어진 정주목을 장승식의 石像으로 제작 건립코자 했고, 彫刻者는 정주목의 濟州 巫俗의 神像觀念과 機能을 結付시켜 그러한 형상으로 조각하여 놓게 된 것이고, 이미 儒學的 사고에 젖은 官은 이를 翁石, 翁仲石 등으로 불렀지만 일반은 “정주목”의 呪的 禁標의 기능이 殘存함을 속신하고 이를 包括 표현하려 하여 ‘정주목’의 접미사 ‘~ 목’을 붙여 ‘우석목’이라 부르게 된 것 이라고 論하고 있다. 즉, 北方系의 文化의 地域境界守護神의 韓國的 進化인 장승의 形態에 濟州의 文化의 家屋出入路 수호신인 ‘정주목’神의 형상과 기능이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 이라 보는 것이고, 그 제작동기는 北方의-陸地的-民俗觀念이 優位에서나 제작의 基盤은 濟州固有의 習俗과 信俗에 있으며, 그 결과는 형상이나 기능이 濟州 고유의 것이 되었다³⁰⁾고 하고 있다.

2) 돌하르방의 名稱

濟州石像의 名稱은 우석목, 무석목, 벽수머리, 돌하르방, 돌영감, 수문장, 동자석, 응중석, 망주석 등으로 多樣하여 通稱的인 이름은 없고, 그 중 가장 많이 쓰이는 名稱으로는 “돌하르방”으로 제주 도처에서 어린이들을 비롯한 민간에서 通用되는 말로 그 뜻은 ‘돌로 만든 할아버지’란 俗稱³¹⁾이라 한다. 한문을 즐겨 쓰던 상류사회나 한학자간에는 ‘돌하르방’을 翁仲이나 翁仲石이라 불리었고, 간혹 ‘돌부처’니

29) 김영돈, 전계서, p. 122

30) 현용준(1963), “제주석상 ‘우석목’ 소고” 「제주도」 통권 제8집, pp. 139~140

31) 문기선(1981), “돌하르방의 미술해부학적 연구”, 「인문학편 논문집13」, 제주대학, p. 193

‘미륵’이니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불상과 흡사하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이들 가운데는 돌하르방에 拜禮하며, 기원하는 광경을 종종 볼수 있다³²⁾고 한다.

한편 ‘翁仲石’이란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古事에서 유래 되어 온 것이라고도 한다.

「山堂 肆考」³³⁾라는 책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 할 때에 阮翁仲이라는 거인으로 하여금 臨兆를 지키게 하여 그 용명이 널리 북방의 흉노족 사이에 떨쳤었다. 翁仲의 사후에 동상을 만들어 咸陽宮의 司馬門 밖에 세워서 지키게 하였다.”는 고사에 의하여 守護神將類(동상이나 석상)를 翁仲 또는 翁仲石이라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학자들이 寺墓石人이나 石장승 등의 석상을 翁仲이라고 기술³⁴⁾하고 있다.

‘벽수머리’라는 호칭은 표선면 성읍리에서만 쓰일 뿐인데 ‘벽수머리’란 ‘벽수’와 ‘머리’의 합성어로 本土의 남부지방에서 ‘장승’을 대체로 ‘벽수’라고 하는데 이에서 유래한 말 인것³⁵⁾ 같다. 그러나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84년 10월 20일刊)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에 “벽수머리[들] 너븐땅 남쪽에 있는 들”이라고 있으니, 이곳에도 벽수머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전에 濟州牧 과 大靜縣, 族義縣의 읍성의 수문장으로 세웠던 우석목만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었으나, 이 龍水里에도 벽수머리라고 불린 장승이 있었다³⁶⁾고 한다.

현용준(玄容駿)은 ‘偶石木’을 “가장 일반적인 명칭으로 누구든지 통용하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며 고유한 명칭이라 보아진다”³⁷⁾며, 漢字語로 설명해 보면 우석목(偶石+木)을 石製인 偶像인데 왜 ‘木’이 붙었는가 하는 이유를 달면서, 이 石像의 본래적 구조나 기능이 ‘정주목’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이라 추단

32) 진성기, 전계서, p. 28

33) 彭大翼, “山堂肆考”(1595, 明 神宗 萬曆23年)

(翁仲姓阮身長一丈二尺秦始皇併天下使翁仲將兵守臨兆聲振匈奴秦人以爲 瑞翁仲死遂鑄銅像置咸陽司馬門外)

34) 김두하(1990), “벽수와 장승”, 집문당, p. 897

35) 김영돈, 전계서, p. 105

36) 김두하, 전계서, p. 569

37) 현용준, 전계서, p. 129

하고 그러던 것이 후에 石像으로 彫刻改建하게 되고 漢學者的, 官的 명칭으로 '偶石'이라 불렀겠으나 본래의 '정주목'의 의미를 포괄 표현하려는 言象心理가 정주목의 '一목'을 '偶石'에 接尾하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이 石像이 '정주목'의 발전적 변형이라면 基石에 □形과 卍形의 掘刻은 '정낭'을 꼽았던 잔재며 비실용적인 橫木을 꼽았던 것은 '정낭'을 걸치면 수호신이 통금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통행을 금지하는 標識이 있었다고 하고 있고, '정낭'이 實用的이요, 呪術的인 禁止기능이 역시 이를 대신 했던 우석목에도 계승되었다³⁸⁾고 하고 있다.

3) 돌하르방의 機能

古來로부터 인간은 사물이나 어떠한 형태에 자기나름대로의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변형된 상징을 만들어 종교나 예술로 표현하고자 했다. 원시 고대사회에서는 다듬지 않은 自然石에는 영혼이나 여러 神들이 거하고 있다고 믿고 비석이나 境界碑로, 혹은 종교적인 외경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自然石을 이용하였다. 또한 인류가 돌에서 느끼는 영혼이나 영성을 형태로 나타내고자 애쓴 흔적을 선사시대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형태가 인간의 얼굴 모습의 윤곽을 하고 있는 고대의 선돌, 그리이스의 경계비에서 발전된 형태의 境界柱, 그 밖에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구석기 시대의 偶像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³⁹⁾

原始宗教, 혹은 土俗信仰에 있어서 自然石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돌은 大地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영속적인 시간성과 부패하지 않는 힘이 내재 해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암석숭배는 고대로부터 계승되어 오는 관습으로 초자연적 영역과의 관계에서 당대의 현실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과 기능을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自然石에도 인간의 신앙적 주술대상물로 삼아 신성시했다.

"돌하르방은 본디 성문 밖에 지켜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천만리 먼 곳까지라도 쏘아보는 듯한 야무진 눈망울을 지니고 있어, 그 표정으로써 부락에 침입하는 雜鬼

38) 현용준, 전제서, p.137

39) Aniela Jaffe (1989), 이희숙譯, 「美術과 象徵」, 서울 열화당, pp.15~17

나 雜人을 쫓아내는 일을 맡아왔다.”⁴⁰⁾ 이러한 표정을 지으며 묵묵히 성밖에 서 있는 돌하르방의 기능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김영돈은 그의 보고서에서 삼주현성 내 古老들을 찾아 기능을 물어 보아 다음과 같이 종합 설명 하고 있다.

첫째, 수호신적 기능이 있다. 마치 성문을 武將이 보초하여 수호하듯 州縣城 소재지의 無事를 엄숙히 지키는 기능을 지녔다는 것이다. 문지기 노릇을 한다든가, 수위, 방어의 노릇을 한다든가, 묘소의 동자석의 기능과 같다든가, 수호신격 이라든가 하는 등의 주민들의 견해들은 모두가 수호신적 기능이 있음을 말해주는 그 傍證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주술종교적 기능이 있다. 이 석상은 방사탑(防邪塔)과 비슷한 기능이 있음을 주민들에게서 흔히 듣는데 방사탑을 흔히 ‘거오기’라 한다. ‘거오기’란 돌무더기를 둥그렇게 쌓아올린 다음 목제의 鳥形을 맨 위에 만들어 얹어서 풍수지리적 사기를 막는다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제주시 외도동 덕지담 지경에 세워져 있고, 대정읍 仁城理에는 軍주둔으로 인하여 철거했다가 仁城에 홍사가 찾아지자 1959년경에 복원했다고 한다. 州縣城 석상 역시 방사탑과 비슷한 방사, 축사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성읍리의 경우 어떤 환란의 피해도 입은 일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읍이 본디 풍수지리적으로 ‘兵火不入之地’라는 이유와 함께 이 석상이 세워져 있음으로써 사기를 방어, 축출하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또한 대정현성의 석상 하나는 코가 꺾이었는데 애를 못 낳는 여인이 이 가루를 빵아 먹으면 得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뜯어 갔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 석상에는 주술종교적 기능이 있음을 한결같이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위치 표지 및 禁標로서의 기능이 있다. 석상이 성문마다 웅성이 굽이쳐 나간 자리양옆에 마주하여 몇基가 의젓하게 서 있음을 외래인들이 내다볼때 주현성에 다달았음을 더욱 뚜렷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위치 표지적 기능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이 성문 안으로 출입하는 것이 제한

40) 진성기(1981), 「제주민속의 멋 2」, p. 24.

되었다는 말들도 전해 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능이 육지부의 '장승'의 기능과 유사점이 많다고 보면서 '장승'이 제주도에 유입하여 변형 발전한 것⁴¹⁾이라 보고 있다.

현용준(玄容駿)은 그의 논문 「濟州石像 '우석목' 小老」, 제주도. 1963. 제8집」에서 석상의 기능을 제시했는데 첫째, 석상이 성문밖 가까운 지점에서 부터 세워졌다는 점은 外來者에게 주현성에 다달았음을 알리는 境界標的 기능이 있고 둘째, 성문의 굽이도는 길목 좌우에 부리부리한 눈초리로 마주보게 세워 놓은 것은 관가의 위엄성을 보이고 출입자에게 두려움을 주어 성문을 지키는 경계 수호적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셋째, 대정현성 북문에 석상을 치웠더니 도둑이 많아졌다는 말이 있어 그 석상의 형상에서 우러난 위엄성에서 기능하는 수호를 넘어, 초자연적인 수호 기능이 있음을 생각해 하여, 주민들은 이 석상이 凶氣나 도적을 방어하는 초자연적 위력을 가져 주술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信仰하였음을⁴²⁾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2. 돌하르방의 造形美 분석

傳統이란, 역사적으로 精神文化의 근본이 되는 가치 있는 것이 共有對象으로 전승되어 간다는 恒存性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物的對象과 같이 고정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속에서 傳受·繼承되어 가는 것이다.⁴³⁾ 우리의 美意識은 이러한 전통속에 당대의 생활과 환경 풍토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문화가 지속되어 왔고 그 동안 他文化와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濟州의 문화적 전통이 곧 한국적 전통이라는 맥락아래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음은 틀림이 없다. 또한 향토문화에 대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찾고 전통문화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41) 김영돈, 전계서, pp.113~116

42) 현용준, 전계서, pp.133~134

43) 백기수(1985), 「미학서설」, p.153

옛 삼주현성의 성문 밖에 지켜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돌하르방은, 거추장스러운 병거지를 꼭 눌러 쓴 불룩한 뺨 옆에는 길쭉한 귀가 달려 있고, 두 손으로는 앞 가슴을 부여 잡고 있으며, 부릅뜬 두 눈은 한사람의 잡인도 단 한가지의 不義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산같은 의지와 용맹으로써 앞을 쏘아 보고 있다.⁴⁴⁾ 그리고 비교적 큼직하고, 불룩돋은 觀骨筋, 무표정한 頰筋, 나지막한 입술에 一字로 썸입, 좁고 無視한 듯한 頰部에서 눈 가까이에 길게 매달린귀, 전체의 顔面이 가우똥하게 약간 쳐들고, 미소마저 담백 담은 모습은 볼 수록 보는 사람에게 썸 익살스런 표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제주 돌하르방의 印象이고, 고르지 않은 어깨에 동세를 담아 활터이면 해보라는 듯 거드름 피우는 자세의 왼 쪽 또는 오른쪽 어깨를 치켜올린 태도는 또한 돌하르방이 지닌 멋⁴⁵⁾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이 강직하면서 온유하며 명칭하면서도 덕성을 지니고 있으며, 허탈한 눈망을 속에 불굴의 기상이 돋보이고 있는 이 돌하르방들의 다양한 표정들은 諧謔적으로 한 石像에 담아 지니고 있는 점은 온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독특한 濟州 고유의 향토색을 지닌 귀중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할 수 없다.

1) 돌하르방의 餘裕와 諧謔美

濟州島라는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재난과 극복의 역사, 수난과 질곡의 역사로서, 기쁨보다는 슬픔이,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으로 점철된 역사이다. 섬(島)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과 강국의 지배,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불모의 자연환경 등을 극복하여 살아온 濟州先人들은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을 담담하게 받아 들이고, 自己속에서 正化하여 풍자와 해학으로 순화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濟州島 특유의 승승이 돌에 새긴 돌하르방은 어느 지역 장승보다도 그 양식화한 일정한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간결한 형태요약을 통한 단순미라고 할 만하다. 이 돌하르방은 제주도 특유의 무덤가 석인상과 함께 그 풍토적 정서를

44) 진성기, 전계서, p.24

45) 문기선, 전계서, p.192

대변하는데, 돌하르방은 바로 이 석인상을 공동체적 이미지로 바꾸어 나름대로의 전형적 수호신앙을 만들어낸 것이다.⁴⁶⁾

돌하르방을 보면 우리들은 미소를 짓게 된다. 그 미소가 곧 구수한 감을 느끼게 한다. ‘구수’는 인간의 체취가 느껴짐으로서 이루어지고, 어디까지나 인간적이며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며 인간미가 넘쳐 흐른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곧 구수한 멋으로 통하고 거기에는 따스한 인간성이 넘치는 익살과 해학이 있는 것이다.

濟州島의 자연속에서 자연 그대로 비바람에 씻긴 시간을 새기며 오늘도 어느 곳에서 있는 돌하르방은 프리미티브한 만큼 원초적 현상의 감동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다. 돌하르방의 아름다움은 島民의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천시 받던 基層文化圈의 마음이다. 단순하고 소박한 돌하르방의 표정은 단순하고 소박한 흔적을 남기며 선을 새기는 단순하고 소박한 연장들에 담긴, 단순하고 소박한 민중들의 마음 그것이다. 그것은 복잡함을 외면하는 단순이며, 꾸밈을 멀리하는 素朴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 표정에는 자연이 있고 근원이 있다. 그 자연과 근원은 모든 변화의 원천이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맑은날과 비오는 날의 표정이 제마다 다르다. 그것은 익살스러우며 무섭다. 익살스럽게 보면 익살스럽게 보이고 무섭게 보면 무섭다. 또한 슬프게 보면 슬프고, 기쁘게 보면 한없이 기쁜 얼굴이다. 성난 얼굴로 돌아보면 그것은 화난 모습으로 다가오고, 한걸음 다가서서 볼때와 열걸음 물러나서 볼때의 인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에서 안다.⁴⁷⁾ 돌하르방의 특 튀어나온 왕방울 같은 눈망울은 부리부리하고, 또 한편 바보온달처럼 어리석 하기도 하다. 치켜 올라간 부릅 뜬 눈 꼬리도 어떻게 보면 바로 웃을 듯 울 듯한 모습이다. 주먹코는 얼굴 전체의 반을 차지하며 우람하게 솟았다. 그것은 익살이며 해학이다.

46) 유흥준, 이태호(1988), “미술사의 시각에서본 장승”, 「장승」, 열화당, p.166

47) 이상일(1990), 「한국의 장승」, 열화당, p.13



〈사진 1〉



〈사진 2〉

① 제주대학교 정문앞 좌측

병거지를 약간 비스듬하게 쓰고 얼굴을 쭉 내밀어 무엇을 노려보는 인상을 풍기는 돌하르방이다. 굳게 다문 입은 우에서 좌로 내려오듯 선각 되었고, 양 어깨를 뒤로 저쳐 금방이라도 원주먹이 툭 튀어 나올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조형감각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특히, 기석에 얹혀있는 자세가 매우 안정되어 보인다. 기석에는 ㄱ形의 홈이 뚜렷하게 파여있다.

② 제주대학교 정문앞 우측

오른손을 가슴위에 올려놓고 입을 꼭 다물고 눈을 부릅뜬 형상으로 성난 표정을 하고 있다. □形 구멍이 있는 기석위에 있지만, 좌측에 있는 돌하르방에 비해 안정감이 다소 떨어지는 듯하다.

사진 번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1	濟州邑城 東門밖	185	97	238	ㄱ	4-2-6
2	"	225	103	212	□	4-2-5



〈사진 3〉

③ 제주KBS 현관 좌측

양팔과 손을 힘껏 쳐들어 누구든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불굴의 기상이 엿보이는 돌하르방으로 얼굴은 호인 같아 보인다.



〈사진 4〉

④ 제주KBS 현관 우측

왼쪽 어깨를 한껏 치켜올리고, 왕방울눈에 주먹만한 코를 벌름거리며 제주도 巫俗神話에 나오는 '정주목'神의 형상을 나타냈을까, 아주 근엄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고개를 높이 들어 비스듬하듯하여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 번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3	濟州邑城 東門밖	201	91	210		4-2-13
4	"	198	73	230		4-2-14



〈사진 5〉

⑤ 제주시청 현관 좌측

제주도에 있는 돌하르방중 이마가 매우 긴것으로 광대뼈의 표현이 부각되어 있어 흡사 안동의 하회탈을 연상하게 한다. 양손의 위치와 어깨의 높이 표현이 반대로 되어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손목의 표현은 우측에 있는 돌하르방과 동일하게 ㄱ線이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으나, 뒷모습은 다른 돌하르방에 비해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되어져 있다. 특히 팔과 등 사이에 ㄱ形으로 조각된 점이 특이하다.



〈사진 6〉

⑥ 제주시청 현관 우측

제주대학교 박물관 좌측에(사진 23) 있는 돌하르방과 흡사한 귀면상을 하고 있는 돌하르방으로서, 병거지 표현이 아주 우수하게 표현되었다. 즉 병거지의 태와 상부에 오르는 지점에 三輪이 정교하게 線刻되어있고, 특이한 점은 손목에 ㄱ線이 뚜렷히 선각되어있으며, 오른손과 왼손의 세련된 배치가 돋보이는 조형미가 아주 우수한 돌하르방이라 하겠다.

사진 번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5	濟州邑城 東門밖	200	95	216		4-2-20
6	"	187	98	230		4-2-19



〈사진 7〉

⑦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좌측
 濟州邑城 東門밖에 세워져 있다가 유일하게 서울국립민속박물관에 가 있는 돌하르방이다. 체구에 비해 얼굴이 크고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 약간 불안한 느낌을 준다. 손목에 주름인 듯한 ㄱ線이 뚜렷하게 파여 있고 ㄱ形 홈이 파인 기석 위에 얹혀 있다.



〈사진 8〉

⑧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우측
 좌측에 있는 돌하르방과 마주하여 입구에 세워졌는데, 병거지 쓴모습이 좀 어색하게 조형되었고 이마도 긴편이며 험한 인상을 하고 있다. 기석에는 □形의 홈이 15cm 정도로 깊게 파여 있다.

사진 번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7	濟州邑城 東門밖	205	93	205	ㄱ	4-2-23
8	"	200	92	189	□	4-2-22



〈사진 9〉

⑨ 관덕정 앞마당 좌측

측면에서 보면 병거지가 뽀족하게 표현되었고, 입을 한일(一)字로 굳게 다물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얼굴 표정에는 한사람의 잠인도, 한가지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사진 10〉

⑩ 관덕정 앞마당 우측

이마가 가장 길게 표현된 돌하르방이다. 머리와 병거지의 부조화는 제작한 石工의 익살일까, 쓸듯 말듯 걸쳐져 있고, 고개를 가우뚱하여 먼곳을 응시하는 자세는 믿음직스럽고 여유있어 보인다. 오른쪽 눈망을 가운데 자연적인 기공이 있어 더욱 생동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 굴 길 이 (cm)	몸 체 둘 레 (cm)	기 석	지 정 번 호
9	濟州邑城 西門밖	190	82	195		4-2-8
10	"	205	89	175		4-2-7



〈사진 11〉

⑪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입구 좌측 좌측 팔 부위는 심하게 파여 있는데 원석 그대로 인지 파손에 의한 흔적인지 확실하지 않다. 턱이 몽실하게 조각 되고 얼굴과 병거지 형태가 조화로우며, 전체적으로 근엄하고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몸체와 기석을 시멘트로 고정시켰는지 보기 흉하게 되어 있다.



〈사진 12〉

⑫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입구 우측 넓은 이마를 가지면서도 다른 돌하르방에서 보이는 주름이 없어 미묘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다. 눈은 동그랗게 양각되었는데 돌보기 안경을 쓴 듯한 느낌을 주는게 익살맞게 보인다. 어깨의 높낮이도 비슷하게 되어있고 오른손은 기석에 닿을 듯 길게 늘어뜨려 전체적으로 길쭉해 보인다. 뒷 부분이 ㄱ形으로 조각 되어 있다. 코 부위에 시멘트로 보수한게 매끄럽지 않다.

사 진 번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11	濟州邑城 西門밖	189	78	158		4-2-10
12	"	195	80	205	□	4-2-9



〈사진 13〉

⑬ 관덕정 뒷뜰 좌측

안면 표정에서 보이는 느낌은 한마디로 익살 그 자체이다. 눈 꼬리도 조금 밑으로 쳐져 있고 둥그런 콧망울, 빙긋이 웃는 입모양에 양볼에는 주름이 깊고 자연스럽게 파여 있다.



〈사진 14〉

⑭ 관덕정 뒷뜰 우측

밑부분이 땅 속에 파묻혀 있는지 오른손이 땅에 닿을 듯 세워져 있다. 작은 편에 속하는 돌하르방인데 얼굴 표정은 근엄하다. 오른쪽 손등에 각을 주고 있어 입체감을 주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13	濟州邑城 西門밖	170	80	157		4-2-12
14	"	145	79	156		4-2-11



〈사진 15〉

⑮ 제주국제공항 입구 좌측
 제주 시내에 있는 다른 돌하르방에 비해 특이 할 만한 점은 별로 없다. 다만 최근에 파손되었는지 코 밑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검정 얼룩이 칠해져 있어 협상국은 얼굴을 하고 있다.



〈사진 16〉

⑯ 제주국제공항 입구 우측
 병거지는 약간 뒤로 젖혀 있고 둥그런 눈모양에 입은 방긋이 웃는 스마일形으로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면을 통해 돌하르방에서 제주인의 삶의 해학을 느껴 볼 수 있겠다. 흠이 있는 기석에 얹혀져 있는데 ㄱ形흠이 뒷쪽에 위치하고 있다.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15	濟州邑城 南門밖	176	88	163		4-2-2
16	"	206	82	180	ㄱ	4-2-1



〈사진 17〉

⑰ 삼성사 입구 좌측

제주도에 있는 돌하르방 가운데 가장 키가 크다. 바람에 휩 날려버릴 듯한 병거지를 쓰고 있으며 거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전혀 주지 않는다. 두툼한 코는 자투병 같아 보이고 왼쪽으로 치켜올린 입술 모양이 여유있어 보인다. 손곡에는 Ⅱ線이 線刻 되어 있다.



〈사진 18〉

⑱ 삼성사 입구 우측

구멍이 숭숭 뚫어져 있고 표면처리가 매우 거칠게 된 돌하르방이다. 얼굴의 표정, 표현기법등도 다른 돌하르방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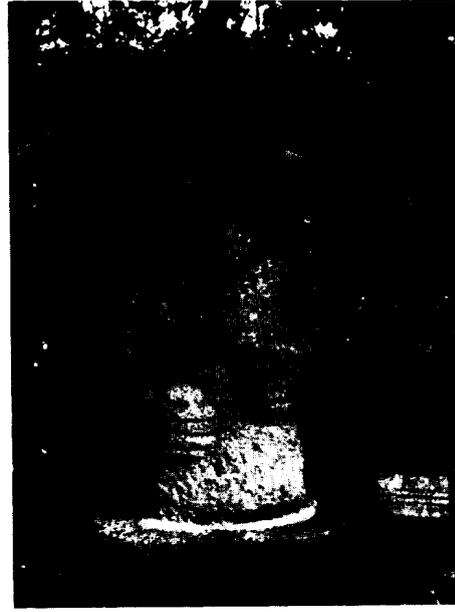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17	濟州邑城 南門밖	234	92	242		4-2-16
18	"	215	95	225		4-2-15



〈사진 19〉

⑲ 삼성사 정문 앞 좌측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매우 상기된 얼굴표정이 잔뜩 움추려 있어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 한쪽으로 불룩 휘어진 턱모양등 얼굴 전체에서 흐르는 느낌은 틀이 빠진 할아버지의 얼굴, 너그러움 그 자체이다.



〈사진 20〉

⑳ 삼성사 정문 앞 우측

무표정한 인상에 꼭 다문 입모양이 매우 인자한 모습이다. 할아버지의 상이 아니라 건강한 젊은 장군인상을 하고 있다.

사진번호	원 위치	크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19	濟州邑城 南門밖	169	78	175		4-2-18
20	"	180	83	190		4-2-17



〈사진 21〉

㉑ 목석원

전북 부안읍 동중리의 북부에 '東門 안'이라는 자연부락 마을입구의 도로 양편에 있는 石장승과 매우 흡사하다(부록사진 1, 2). 다른 곳에는 모두 쌍으로 세워져 있는데 목석원에는 1基만 외롭게 서있어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다. 턱 밑으로 두 동강이 났는지 자연스럽게 흠이 둘러져 있고 상단 병거지 부분도 자연석 그대로 인지 고색 창연하게 보인다. 눈, 코, 입 표현이 아주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고 움추린 듯한 동작을 취하고 있지만 긴장감이 엿 보인다.

사진번호	원 위치	크기 (cm)	얼굴길이 (cm)	몸세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21	濟州邑城 南門밖	157	77	175		4-2-21



〈사진 22〉

② 제주대학교 박물관 입구 우측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입을 한일 (一)자로 꼭 다물고, 부릅뜬 눈이 위로 치켜 올려 있는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턱이 가슴에 꼭 묻히어 움추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뒷면은 冂形으로 조각 되어있다.



〈사진 23〉

③ 제주대학교 박물관 입구 좌측
頭部는 빙거지를 눌러써서 형태가 뚜렷하며 빙거지가 가장 잘 표현된 것으로서 모자의 태와 上部사이에 三輪이 정교하게 조각되었으며, 깊이 패인 눈, 두툼한 입술, 툭 튀어나온 광대뼈 등 안면의 근육과 볼록하게 튀어난 가슴, 팔, 손의 근육이 매우 해부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육지부의 귀면상 장승과 흡사하다. 뒷 모습의 어깨와 목의 표현도 정교하다.

사진 번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22	濟州邑城北水口門밖	157	72	165		4-2-4
23	"	165	75	160		4-2-3



〈사진 24〉

㉔ 대정읍 안성리

안성리 입구 도로변 좌측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돌하르방으로서 대정의 돌하르방 가운데 조형미가 가장 우수하다. 이목구비 위치도 적절하고 뚜렷하게 조형되었으며, 손가락도 자세하게 표현됐는데 제주 시내에 있는 돌하르방과 비슷한 손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上·下로 교차시킨 두손은 몸체의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데 마치 병정이 소총을 들고 보초를 서는 듯한 인상을 풍겨,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역력하게 엿보이는 돌하르방이다.



〈사진 25〉

㉕ 보성국교 입구 우측

얼굴의 크기가 몸 전체의 크기보다 더 크게 만들어져 있어 반비례 形으로 손가락의 표현도 다소 왜소한 편이다. 왼손은 땅 속에 묻혀있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도 성문을 지키겠다는 의욕에서 인지 두 눈망울은 번득거리고 있다.

사진번호	원 위치	크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24	大靜縣城 東門밖	137	66	147		4-2-24
25	"	108	65	152		4-2-25



〈사진 26〉

㉔ 보성국교 입구 좌측

두부와 빙거지의 형태가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표정한 얼굴에 입모양은 방긋이 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 팔과 손가락의 표현도 아주 우수하다.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입구에 2기의 石 像이 마주보며 서있고, 좌측의 女像은 귀도크고 당당한데 몸앞에 두손을 부조하여 예쁘게 보이는 것이 제주도 돌하르방의 형태와 닮았다.⁴⁸⁾ (부록사진 3)



〈사진 27〉

㉕ 보성국교 교정 좌측

다른 돌하르방에 비해 몸체가 비대하며 특히 타원형의 눈이 위로치켜 올라 있고 입술을 꼭 깨물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고 있다. 손은 몸체의 중앙에서 전면을 가라듯이 교차시키고 있다.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26	大靜縣城 東門밖	125	61	151		4-2-26
27	"	116	59	190		4-2-27

48) 김두하, 전계서, p. 797



〈사진 28〉

㉘ 보성리 노변

첫인상에서 부터 도무지 성을 지키는 수문장이었다는 말이 어색할 만큼이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도로변 한 모퉁이에 서 있다. 모자는 병거지가 아니라 제주남박(나무바가지)을 뒤집어 쓴 것 같고, 이중으로 돌출된 눈에는 구멍이 뚫여 있는데 인위적인지 자연적인지 모르지만 매우 장난끼 있어 보인다. 코는 石像의 코를 갈아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신에 의해 누가 한밤중에 떼어 갔는지 지금은 보이질 않는다.



〈사진 29〉

㉙ 보성리노변(신평리 가는길)

모자의 형태가 이채롭다. 마치 나무 바가지를 쓰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근엄한 할아버지 인상을 하고 있으며, 民草들의 소원을 흘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지 귀의 모양이 활처럼 휘어져 있고 길이가 얼굴 측면 길이와 같다.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28	大靜縣城 西門밖	115	58	165		4-2-26
29	"	128	52	173		4-2-30



〈사진 30〉

㉔ 보성리 사무소 입구 좌측

대정에 있는 돌하르방 가운데 가장 특이한 돌하르방으로 좌우대칭형 구도로 제작 표현 되었다. 인성리 우측에 있는 돌하르방(사진33)과 같은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얼굴표정과 포즈는 매우 의젓하여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 형태이며, 이는 육지부의 묘지 등에 세워진 文人石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턱밑에 U字形의 돌출된 점이 특이하고 가슴 중앙 부위에 갈매기모양의 문양이 彫刻 되어 있는 점이 다른 돌하르방하고 다른 특이한 점이다.



〈사진 31〉

㉕ 보성리 사무소 입구 우측

대정의 돌하르방에서 보이는 특이한 양식은 눈을 이중으로 양각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본토의 남부지방에 많이 보이는 유형으로 전남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석장승(부록사진 4)과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석장승(부록사진 5)에도 눈을 이중으로 양각하고 있다. 여기 있는 돌하르방은 두 눈만 유별히 튀어나와 있어 이러한 표현은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는 돌하르방을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로 보인다.

사진번호	원 위치	크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30	大靜縣城 西門밖	135	67	172		4-2-31
31	"	124	63	153		4-2-29



〈사진 32〉

㉔ 인성리 좌측

얼굴조각 표현이 섬세하고 특히 이증으로 양각된 타원형의 눈망울은 꼭 옛 제주의 잠녀들이 사용하던 水鏡을 끼고 있는 듯한 착각을 주며 코의 표현 또한 결작이다. 특이하게 입모양이 물결 무늬로 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매우 해학적인 조형미를 보이고 있다.



〈사진 33〉

㉕ 인성리 우측

양손을 가지런히 모아 가슴 중앙에 대고 있는 모습인데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돌하르방이다. 턱 밑에 U字形으로 돌출되어 있는점이 추사기념관 우측(사진 35)에 있는 돌하르방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 굴 길 이 (cm)	몸 체 둘 레 (cm)	기 석	지 정 번 호
32	大靜縣城 南門밖	140	77	190		4-2-32
33	"	146	79	200		4-2-33



〈사진 34〉

㉔ 추사기념비 입구 좌측

대정의 돌하르방들도 대체로 동일한 양식을 취하고 있지만, 각 돌하르방마다 새로움을 발견 하게 된다. 四角진 돌기둥에 조각 했는지 몸체는 각을 그대로 살려 어깨와 손을 조각 했고, 얼굴모양은 둥그렇게 표현하여 圓과角의 조화를 적절하게 조형된 돌하르방이다.



〈사진 35〉

㉕ 추사기념관 우측

빙거지 표현이 잘 되었고 팔과 손의 표현도 아주 자연스럽게. 무표정한 얼굴에 입모양이 미소를 띠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뒷목으로부터 턱을 따라 양각된 선이 있는데 목도리를 두른 듯, 혹은 옷의 주름인듯한 느낌이 한 눈에도 알 수 있는게 특이하다.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 굴 길 이 (cm)	몸 체 둘 레 (cm)	기 석	지 정 번 호
34	大靜縣城 南門밖	124	66	174		4-2-34
35	"	143	75	187		4-2-35



〈사진 36〉

㉞ 표선면 성읍리 동문밖 좌 1

한동안은 성문 밖에서 지나가고 오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대접 받다가 지금은 보호 철책 안에서 양전히 보호 받는 신세로 바뀌었다. 역사란 이런 것인가. 하지만 길게 움푹 패인 두 눈망울은 지금도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 당시의 위엄성이 지금도 보이고 있다. 현무암 특유의 석질로 인해서 인지 입부분의 표현이 다소 어색하다.



〈사진 37〉

㉟ 성읍리 동문밖 우 1

성읍리 돌하르방의 특징이 할 수 있는 것은 顔面의 형식에서 코를 과감하게 과장하여 부각시키는데 이 돌하르방은 얼굴이 특히 큰 편으로 얼굴 전체 길이의 2/3을 차지하고 있다. 눈 꼬리는 위로 치켜 올라 갔으며 달걀形의 얼굴과 네모진 몸체와의 균형이 어색하게 보이고 있으며 동자석에서 많이 보이는 표현 양식을 취하고 있다. 머리와 얼굴 길이가 몸체의 길이보다 길게 조각되어 있어 부자연스럽다.

사진번호	원 위치	크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36	旌義縣城 東門밖	152	76	184		4-2-33
37	"	126	69	160		4-2-37



〈사진 38〉

㉞ 성읍리 동문박 좌 2

전체적인 비례나 균형이 알맞게 조형된 돌하르방으로서, 전북 남원군 주천면 호기리 마을에 있는 석장승과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석상의 특징으로는 비문이 없으며 병거지라고 보여지는 모자를 썼고 양팔은 무언가를 안고있는 듯이 조각되어 있어 제주도 돌하르방과 흡사한 것으로 조선조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키는 9척이나 된다⁴⁹⁾고 하고있다. (부록사진 6, 7)



〈사진 39〉

㉟ 성읍리 동문박 우 2

濟州島의 혹독한 자연환경의 역사를 대변이나 하듯 얼굴과 몸 전체에는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벌집같은 구멍이 송송 뚫여 있다. 가까이 들여다 보면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지면서 기기묘묘한 형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38	旌義縣城 東門박	130	63	150		4-2-38
39	"	120	62	157		4-2-39

49) 상계서, p. 769.



〈사진 40〉

⑩ 성읍리 서문밖 좌 1

성읍의 다른 돌하르방에 비해 병거지 표현이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되어 있어 두부와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눈이 움푹 패여 있어 강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좁은 어깨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 있고 양손은 무엇을 쥐고 있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 몽탄면 총지 마을에 있는 석장승은 민둥머리에 꼭다 문 입이 이색적이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 있는 야무진 모습이 제주도 돌하르방과 인상이 닮은 것도 흥미롭다. (부록 사진 8.9)



〈사진 41〉

⑪ 성읍리 서문밖 우 1

완벽에 가까운 계란形 얼굴에 둥근박을 뒤집어 쓰고 四角柱 위에 그냥 얹혀 놓은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목구비 표현이 단순하고 아주 깔끔하게 처리 되어 있어 얼굴 모양과 조화를 이루어 온순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사진 번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40	旌義縣城 西門밖	125	63	161		4-2-44
41	"	154	70	159		4-2-45



〈사진 42〉

⑫ 성읍리 서문밖 좌 2

정면에서 보면 얼굴에 비해 몸이 아주 왜소하게 보이는 돌하르방이다. 어깨에서 팔목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아주 넓고 크게 조각한데 비해 손목과 손가락 표현은 너무 작아 어린이 손 같아 보인다. 성읍에 있는 돌하르방 12基 모두 이러한 표현 양식을 하고 있는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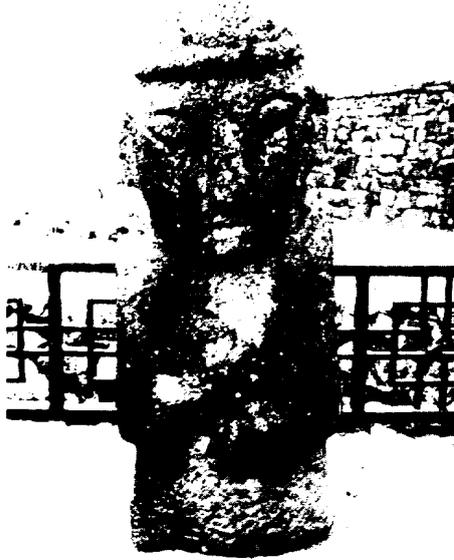


〈사진 43〉

⑬ 성읍리 서문밖 우 2

계란形 얼굴에 빙거지 표현이 정교하다. 왼쪽눈은 동일선상에서 벗어나 위로 치켜 올려 찌러 보는 듯 무엇을 예리한 눈초리로 응시하는 듯하고 반면 입은 코의 단면보다 작을 듯 한일자로 조그맣게 彫刻 되었다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42	旌義縣城 西門밖	136	67	148		4-2-46
43	"	137	71	158		4-2-47



〈사진 44〉

④ 성읍리 남문밖 좌 1

기포공이 많은 현무암인데 石質이 아주 좋아 보이고 표면처리, 표현기법등이 우수한 돌하르방이라 할 수 있다. 얼굴의 불륨이나 치켜 올린 눈에서는 어떠한 잡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기상이 엿보인다.



〈사진 45〉

⑤ 성읍리 남문밖 우 1

타원形인 얼굴에 코의 모양도 메부리 코形으로 과감하게 돌출시켜 다른 안면 부위에 비해 매우 크게 조각 되었다. 눈의 표현도 다른 돌하르방에 비해 이채롭게 보여 건강한 장군상을 하고 있다.

사 진 번 호	원 위 치	크 기 (<i>cm</i>)	얼 굴 길 이 (<i>cm</i>)	몸 체 둘 레 (<i>cm</i>)	기 석	지 정 번 호
44	旌義縣城 南門밖	151	70	202		4-2-40
45	"	177	74	221		4-2-41



〈사진 46〉



〈사진 47〉

⑯ 성읍리 남문밖 좌2

자연석 모양 때문인지 돌하르방을 제작한 石工이 의도적으로 익살스럽게 했는지 눈도 비뚤고, 코도 비뚤고, 입도 한 쪽으로 치우쳐 무척 익살스럽다. 이러한 표정을 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 돌하르방이 지닌 또 하나의 여유이며 해학인 것이다.

⑰ 성읍리 남문밖 우2

큼직하고 넉넉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정확하게 좌우대칭형을 하고 있다. 두툽한 양 볼에는 제주도의 인심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고, 작게 표현된 손이지만 가슴 중앙에 上下로 위치해 주민을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의지가 역력하게 보인다.

사 진 번호	원 위 치	크 기 (cm)	얼굴길이 (cm)	몸체둘레 (cm)	기 석	지정번호
46	旌義縣城 南門밖	155	71	189		4-2-42
47	"	141	59	171		4-2-43

2) 돌하르방의 美的 特性 考察

濟州島에 있는 돌하르방은 머리와 얼굴, 손만이 變形的으로 동체위에 부각되어 있다. 눈, 코, 입, 윤곽, 병거지, 손 모두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긴장미는 없으나 형태는 뚜렷하게 부각된 조각이다. 극히 단순, 소박한 그러나 투박한 노인의 표정이 살아있다.⁵⁰⁾

濟州島 돌하르방들 거의가 기포공이 많은 회색색 현무암을 이용하여 거친 조각을 하였으며, 각 부분별로 특징이 있다 즉, 두툼한 병거지를 폭 눌러쓰고 있으며, 부리 부리한 눈망울, 자루병 같은코, 일자로 찢진 꼭 다문입, 길게 매달린 귀, 약간 들어 올린 턱, 수염 표현의 생략, 블록돌은 광대뼈, 약간 기운 강인한 어깨, 허탈한 표정, 태권도 자세로 주먹을 쥐 듯한 자세 등 두 손을 어긋하게 모으고 선 자세로 칼이나 창을 든 흔적, 임신부 표현 등등이 제주 고유의 향토색을 물씬 풍기고 있다.⁵¹⁾

돌하르방의 모습은 비교적 어느것을 보거나 부릅뜬 두 눈망울이나 병거지를 쓰고, 주먹만한 코등 비슷하지만 규정해 놓은 일정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제주, 대정, 성읍)에 따라 돌하르방의 외모에 각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① 몸체

육지부의 石장승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팔과 손가락이 조각되었다는 것과, 반면 몸체에는 아무런 글귀나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 대정, 성읍의 돌하르방 가운데 제주시내에 있는 돌하르방이 가장 큰 편으로 매끈하게 되었으며, 평균신장이 약 189cm 정도이며 基石 또는 基石없이 묵중하게 세워져 있다. 대정과 성읍의 돌하르방은 다소 왜소하면서, 거칠고 투박하게 조각되었다. 제주 시내에 있는 돌하르방들의 어깨는 한쪽을 오르게 하거나 한쪽을 내려서 변화를 주어 힘을 과시하듯 생동감을 주고 있고, 양손은 가슴과 배위에 얹혀 있어 금방이라도 한손이 튀어나올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손목에 주름인 듯한 선이 움각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성읍에 있는 돌하르방은 모두 일정한 포즈를 보이고 있으

50) 최광열(1974), "한국의 돌조각", 「공간」, 공간사, 6월호, p.58

51) 이종철(1988), "장승기행", 「장승」, 열화당, p.140

며, 손의 모양도 무엇을 잡고 있는 듯한 자세로 배와 가슴 부위에 가지런히 얹혀있다. 대부분의 손의 위치는 왼쪽을 위로 놓고 있는데 東門에 있는 三基는 오른손이 위쪽에 놓여 있다. 팔의 굵기와 손의 크기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소 어색하고, 손가락 표현도 어린이손 같아 보인다. 대정의 돌하르방도 어느정도 일정한 양식을 보이고 있지만 보성리사무소 입구와 인성리에 있는 二基는 양손을 깎지끼듯이 마주 놓고 있는 모습이 濟州島 전체의 돌하르방 가운데 특이한 점이다.

② 기석

육지부 장승에는 없는 독특한 형식으로 제주시내와 성읍에는 현재 남아 있으나 성읍의 基石은 단순한 台石에 지나지 않고 제주의 基石은 □字, ㄱ字, ㄷ字形의 홈이 있어 機能石(打柱石)이 되었던 것⁵²⁾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과 특이한 것으로서 모든이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③ 모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장승의 대부분이 紗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주의 돌하르방은 모두 병거지形 모자를 쓰고 있다. 남부지방에도 병거지 형태의 장승이 많이 분포되었는데 대표적인 장승이 실상사 입구에 서 있다. 바람에 휘 날릴듯한 병거지, 휴식을 취하듯 뒤로 걸쳐 있는 병거지, 넓은 이마를 자랑하듯 병거지를 살짝 쓴 돌하르방등 병거지 形態를 다양하게 彫刻되었고, 삼성사 입구 좌측에 있는 돌하르방은 육중한 체구에 거드름을 피우는 듯 병거지를 옆으로 비딱하게 쓰고 있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이 전혀 없다. 병거지가 가장 잘 표현된 것으로는 제주 대학 박물관 좌측에 있는 것과, 시청현관 좌측에 있는 돌하르방으로써, 모자의 태와 상부에 오르는 곳에 三輪이 정교하게 線刻되어 있다. 대정 돌하르방의 머리 위에 쓴 병거지는 濟州 남박(나무박)을 뒤집어 쓴 形이고 성읍의 돌하르방에는 둥근박을 뒤집어 쓴 形이 대부분이다.

④ 머리 · 이마

52) 문기선, 전계서, p.200

머리는 병거지를 꼭 눌러써서 상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둥근 形이다. 濟州島의 石像중 이마가 가장 긴 돌하르방은 관덕정 정문 우측과, 시청 현관 우측에 있는 돌하르방으로 19cm에 달하는 이마를 지녀 일반적으로 제주의 돌하르방들은 길고 흰칠한 이마라 하겠다. 또한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어 단조로움을 감해주고 위엄을 한 층 느끼게 하고 있다. 반면, 대정, 정의 돌하르방은 이마가 대체로 짧고 주름도 없다.

⑤ 눈

눈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첫 인상을 내보이는 顔面 中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역시 돌하르방에서 느끼지는 첫 인상은 부리부리한 통방울눈일 것이다. 육지부의 장승에는 눈이 더러 세개, 혹은 네개까지 하고 있는데 돌하르방은 모두 두개이다. 제주에 있는 돌하르방은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온몸의 집중력을 눈에다 모이고, 눈 끝을 약간 치켜올려 커다란 눈이 부리부리하게 뚫어질듯 내다보고 있어 보는이로 하여금 긴박함과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고 있다. 濟州島의 돌하르방은 모두 통방울눈이라 표현 했는데, 대정의 돌하르방은 좀 색다르다. 대정의 돌하르방은 모두 눈을 불거지게 양각하고 이중으로 선을 넣어 그 가운데 구멍을 파놓은 모양이 마치 돋보기 안경을 쓴 느낌을 주고 있다. 성읍의 돌하르방도 약간 치켜올린 듯한 통방울눈이지만 제주시내의 돌하르방에 비해 작은 편이다

⑥ 코

“코도 큼직하여 자루병과 같은 코, 막개 같은 코라하듯이 顔面에는, ... 코는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해부 연구하여 만들어..., 鼻筋, 鼻骨과 骨의 연결부위, 翼, ... 특히 콧대와 翼部를 잘 표현하여 불룩불룩 거친 호흡을 하는 듯 生動成을 자아내기도 한다”⁵³⁾ 이렇듯 코의 표현은 모든 돌하르방의 顔面 표현 중 가장 세밀하고 해부학적으로 조각 되었다. 이처럼 제주 돌하르방의 코는 표현도 우수할뿐만 아니라 콧구멍까지 조각해 놓아 주먹만한 코를 벌렁 거리며 먼 곳을 응시하는 듯 배짱이 다 있어 서 있다. 形質人類學的으로 보면, 장승들의 코의 형태는 短鼻形보다 길쭉한 長鼻

53) 문기선, 전계서, p.201

形이 많으며, 狹鼻形보다 코볼이 넓은 廣鼻形으로 시골농부나 할머니의 코를 닮았다고 한다.⁵⁴⁾ 대정의 돌하르방은 三角住形으로 내려오다 단면은 三角이된 코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코의 표현이 다소 납작한 편이다. 성읍의 돌하르방의 코는 얼굴 전체 길이의 반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길다란 長鼻形에 매부리코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三角形을 이루고 있다.

⑦ 입

“형태적인 유추에서 입은 여성 상징이다. 입은 헤 벌리고 있으면 씹씹이가 크고 낭비가 많다고들 한다. 우리들의 입은 크다. 下炫 반달처럼 웃는입, 한일자로 꼭 다문 입, 화난 모습의 뒤동 그린 입, 합죽이 입 등 수없이 많다.” 이종철은 <“장승기행” 「장승」, p.131>에서 장승의 입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濟州島에 있는 돌하르방은 대체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일(一)字形이지만, 제주 시내에 있는 돌하르방의 입 모양은 다양하다. 제주대학교 박물관 입구 좌측과 시청 현관 입구에 있는 돌하르방의 입은 口輪筋, 人中, 上·下脣, 頰筋 등을 잘 표현한 作品이라 보아진다.⁵⁵⁾ 입의 형태를 상층과 하층으로 잘 표현하였고 두툼한 형태가 이채롭다. 제주대학교 정문 우측에 서 있는 돌하르방은 입을 너무 꼭 다물어 밑으로 처져 보는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내보이고 있다. 대정, 성읍의 돌하르방은 대부분 입을 꼭 다물어 一字 형태를 취하고 있다.

⑧ 귀

제주시내의 돌하르방의 귀는 단순하고 길게 직선형으로 陽刻되어 있다. 성읍의 돌하르방의 귀 모양도 대체로 직선형이지만 몇몇 基는 변화를 준듯 약간 曲線形으로 되어 있고 귀의 위치나 크기등이 아주 적절하고 자연스럽다. 대정의 돌하르방 특징으로는 귀의 모양에도 있다. “귀가 크면 남의 말을 잘 듣는다” 듯이 대부분의 돌하르방의 귀가 얼굴의 크기에 비해 큰 편이다. 활 모양으로 큰 곡선을 이루며 側面얼굴 길이에 전면을 꼭차게 彫刻되었다. 성읍의 돌하르방 귀는 나브죽하고 얇전할 뿐

54) 이종철, 전게서, p. 131

55) 문기선, 전게서, p. 201

이다.

⑨ 옷

육지부의 장승과 같이 거의가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대정에 있는 돌하르방 2基는 道服을 입은 듯한 형태가 彫刻되어 있다. 추사기념관 입구 우측에 서 있는 돌하르방은 뒷목에서부터 턱밑을 따라 양쪽으로 Y字形으로 陽刻되어 있다. 인성리 노변 우측에 있는 돌하르방은 역시 같은 방향에서 시작되어 돌출되어 있는데 여기 돌하르방에는 U字形으로 陽刻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⑩ 수염

근엄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얼굴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수염이 육지부의 石장승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수염이 있어 밋밋한 장승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濟州島에는 수염이 달린 돌하르방이 한 基도 없는 점이 또한 특이하다. 다만 대정 보성리 사무소 입구 좌측에 있는 돌하르방은 턱 바로 밑에 U字形으로 돌출된 모양이 앞서 말한 道服 모양하고는 차이점이 있어, 이 양각된 모양이 혹시 육지부에 있는 石장승 수염의 한 유형을 비슷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 본다. 또한 가슴 부위에  모양으로 線刻되어있는 점도 이채롭다.



IV. 結 論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여 살아온 제주인의 미의식은 검소한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외형상의 장식을 거부하고 내면적인 삶의 추구이며, 자연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가 아닌 자연의 혜택에 順應하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淳朴한 美를 창출하여 제주 고유의 民俗文化를 이루어 왔다.

돌을 다듬고, 돌과 싸우면서 돌에 의지하며 그것과 하나가 되어 이룩해낸 돌(石)의 文化 바로 제주 민중의 질박한 생존의 역사인 것이다.

민속문화는 오랜 기간 문화적 전통성을 역사적으로 이어 오면서 민족 문화의 기층을 이루는 공간적 태도를 마련하는 가운데 민족적 창조력을 발휘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민족 예술은 다른 문화양식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민족성, 현장성, 생산성, 집단성 등을 두루 간직하고 있는 열린 구조의 민주적인 예술양식으로 포착된다. 그러므로 민속예술은 민족적인 삶과 생각을 건강하게 방향 잡아주고 민족사가 처한 당면과제들을 온전하게 해결 하는데 다른 예술의 양식을 보다 한층 기층적인 구실을 한다.⁵⁶⁾

돌하르방도 이렇게 우리의 삶속에서 여러가지 기능과 역할을 해 왔으며,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제주인들과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회노애락을 같이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문화의 배경이되는 자연환경과 그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美意識 그리고, 民衆의 心性和 神聖을 담은 基層文化의 遺産인 돌하르방의 생성배경등을 살펴보면서 각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돌하르방을 하나하나 면밀히 관찰하여 돌하르방의 形象속에 표현된 諧謔美와 美的특성을 考察하였다. 현재 국립민속 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2기를 포함하여 47基가 현존하고 있고, 모두 구멍이 송송 뚫린 회색 玄武岩으로 조각되었다. 동일한 기능을 가진것인데도 그형상이 지역에 따라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정리해 要約해보면 다음과 같다.

56) 임재해(1988), 「한국의 민속예술」, 문학과지성사, p. 25.

제주시내 - 가장크고 세련되며 성숙해 보인다. 평균신장이 약189cm 정도이며 기석위에 있는 돌하르방이 10基이며, 그중 기능석이라 불리우는 □形, ㄱ形 홈이있는 기석이 6基가 있다. 모두 병거지가 씌여졌는데 그 모양 또한 각양각색이다. 특히 제주시청 현관 우측과 제주대학교 박물관 입구 우측에 있는 돌하르방은 병거지 표현이 아주 정교하게 주름까지 線刻되어 있다.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흰칠한 이마에 통방울 눈을 하고 있고, 큼직한 자루병만한 코는 아주 세밀하고 해부학적으로 조각되었다. 어깨는 어느한쪽을 오르거나 내리게 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고 양손은 두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과 배 위에 얹혀 있어 긴장감이 돋보인다. 대부분 입을 한일(一)자로 꼭 다물고 있어 침묵을 지키는 듯 매우 위엄성이 있다.

대정 - 관모의 형태는 병거지라기 보다는 나무 바가지를 뒤집어 쓴 形이다. 기석은 전혀 없고, 눈이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되었는데 모두 눈을 불거지게 양각하고 이중으로 선을 넣어 마치 안경을 쓴 듯한 느낌을 주며 아주 諧謔적으로 조각했다. 보성리 사무소 입구 좌측과 인성리 노변 우측에 있는 돌하르방은 다른 돌하르방의 손의 표현과는 달리 깎지꺼듯이 마주 놓고 있는 형태가 아주 특이하다. 귀의 모양도 활처럼 曲線을 이루고 있는 것도 대정의 돌하르방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형상에서 우러나는 느낌은 소박하고 친밀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

성읍 - 지금도 12기 모두가 원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다. 기석이 있는 것도 있는데 모두 아무런 홈이 없어 台石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코의 길이가 얼굴 전체 길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길다란 메부리코로 조각되었고 대부분이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있어 매서운 인상을 하고 있으나 손의 표현에서 다소 어색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슴 중앙에서 上·下로 교차 시킨 두손은 어린이 손 같아 보이지만 주먹을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의지가 역열하게 보여 수호신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돌하르방은 제주민중들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왔으며, 도민들이 자연환경과 역사를 슬기롭게 이겨내온 검소하고 素朴한 생활상과 美意識이 잘표현되어 純粹한 美를 느낄 수 있었고, 대담한 변형과 생략,

單純과 強調가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주변환경과 調和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돌하르방은 도민들의 정신적 상징물로서 뿐만 아니라, 돌하르방에 나타난 소박하고 순수한, 아주 절제된 우수한 조형미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구 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관계기관이나 학계에서는 정확한 고증을 통해 돌하르방의 확실한 기원과 기능등을 다시한번 규명해야 하겠다.

또한, 대도로변에 아무런 보호시설도 없이 세워져 있어 훼손의 우려가 있고, 실제로 파손되어 시멘트 등으로 간단히 보수한 것도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 완벽한 보호대책을 위해서는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시민, 학생, 예술가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아끼고 사랑하고 노력해야만 제주문화의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고창훈외(1991), 「제주기행」, 제주, 백산서당
- 김두하(1990), 「벽수와 장승」, 서울, 집문당
- 김영기(1991), “풍토에 담겨진 조형의식”,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 김영돈(1989),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민족과 문화」, 한국문화인류학회, 정음사
- 김인호(1991), “제주도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평가”, 「제주문화의 재조명」, 도서출판 一念.
- 백기수(1984), 「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1985), 「미학서설」, 서울대학교출판부
- 송성대(1991), “삼무정신 형성에 대한 지리학적조명”, 「제주문화의 재조명」, 도서출판 一念.
- 아니엘라 야페(1964), 「미술과 상징」, 이희숙역(1989), 열화당
- 유홍준, 이태호(1988), “미술사의 시각에서본 장승 ”, 「장승」, 서울, 열화당
- 이상일(1990), 「한국의 장승」, 서울, 열화당
- 이종철(1988), “장승기행”, 「장승」, 서울, 열화당
- 임재해(1988), 「한국의 민속예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제주 교육위원회(1976), 「탐라문헌집」, 교육자료29호, 신일인쇄사
- 진성기(1981), 「제주민속의 멋2」, 서울, 열화당
- 한창영(1982), 「제주도 산고」, 제주, 한일문화사
- 문기선(1981), “돌하르방의 미술해부학적 연구”, 「인문학편 논문집」제13輯 제주대학
- 서경림(1985), “제주돌의 활용방안”, 「제주도」통권 제79호
- 오성찬(1989), “제주와 돌의 문화”, 「제주도」통권 제85호
- 조운득(1987), “濟州 石像에 관한 研究—墓所의 童子石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성기(1973), “제주도 돌하르방”, 「민학2」민학회

최광열, “한국의 돌조각”, 「공간」, 공간사, 1974년6월
현길언(1990), “제주와 돌(石)의 문화”, 「제주도」통권 제88호
현용준(1963), “제주 석상 ‘우석목’ 소고”, 「제주도」통권 제8호
彭大翼, 「山堂肆考」(1595, 明, 神宗, 萬曆23年)



〈Summary〉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Cheju Stone Image : Dol-harubang

Yang, Yong-Bang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Bang-Hee

The stone image, Dol-harubang, has played the roles of town guardian, milestone, and object for wishing affluence to a town. But, recently, it's been so damaged by time, road-widening works and a flood of cars that the people must demand it be preserved in its original shape. The stone image which has gone through such a long time with the Cheju islanders is made by typical Cheju basalts which creates lots of small holes around the bodies.

This stone image stands still without any facial expressions as it speaks for the climate and spirit of Cheju, which confers dignity upon Cheju. The origin of this dignity, not exclusive but having such a tolerance as to embrace every viewer with its smiling and even humorous appearance, has no foundation but only some surmises which are insisted on by some related scholars, such as a inflow of Southern culture, a transmission on Northern culture, an introduction by a mainland's totem pole or its spontaneous generation, etc, and owing to its unsettled name, there have been several names but lately its name ha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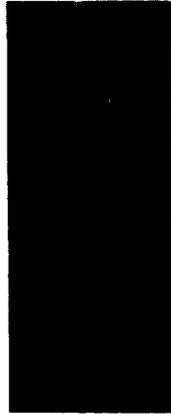
been settled on as Dol-harubang and protected as a local cultural property.

This study made it possible to recognize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the Dolharubang, which was an object of folk belief and can give us a grasp about the feelings of our ancestors in everyday life. Such feelings represent the moderate consciousness of moulding and beauty.

The regional examination of such consciousness and the close analysis of composure and beauty of humor, which are reflected in the statue's image, result in the recognition that Dolharubang is peculiar and various in forms according to regions, and it is in harmony with its surroundings through the expression of simplicity and emphasis. This also gives us such feelings that the moderate and simple life of the inhabitants of Cheju island is well expressed by the statue as well as their aesthetic-consciousness.



〈부 록〉



1. 전북 부안읍 동중리 마을 입구 石장승



2. 사진1의 부분



3.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石장승



4. 전남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石장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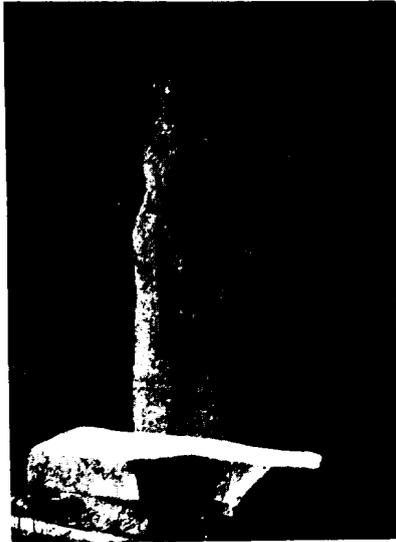
5.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石장승



6. 전북 남원군 주천면
호기리 石장승



7. 사진6의 부분



8. 전남 무안군 몽탄면 송지마을
石장승 좌측



9. 전남 무안군 몽탄면 송지마을
石장승 우측